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e-뉴스레터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1월 4일 추계학술대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16년을 되돌아보면 한국육아지원학회는 사단법인 학회로서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격을 갖추으로써 가능했던 가시적 성과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산하 국가금연지원센터의 「2016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 연구용역의 수주로, 2억 4천만 원 규모의 사업 수주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2005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우수논문 시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나 구두발표에 대한 시상은 물론이고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신진 학자들의 적극적인 학회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있고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은 편집부에서 이룬 두 가지 쾌거로, 본 학회의 학술지인 「육아지원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평가에서 우수성을 확인받았으며,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구축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 일입니다.

또한 「유아 인성교육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용린 교수님께서 ‘육아와 행복역량 키우기’란 기조강연을 해주신 것과 「학문간 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도전과 발전」을 주제로 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재천 교수님의 ‘통섭형 인재와 따뜻한 방목’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공직에 계신 분들이어서 모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덕분에 성황을 이루었고, 더구나 재능기부로 강연을 해 주셔서 정말 송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하계연구 모임으로, 참석자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아쉬웠지만 진지한 심층적 논의의 장이 되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밖에 건강증진개발원의 「흡연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30개 유아교육기관을 지원했던 일도 새로운 시도였고, 만족해 하셨던 맛있는 간식과 추계학회의 기념품 가방은 소소한 기쁨으로 기억됩니다.

한편,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수주한 「2016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 사업은 12월 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어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육아지원학회가 학문적 담론에만 그치지 않고 육아지원을 위한 실천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 과제로 금연버스를 이용하여 7개월 동안 제주도를 포함한 17개 시도에 걸쳐 167개 기관의 유아 10,163명, 그리고 840여명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진의 노력은 물론이고 바쁘신 중에도 지역별 모니터링을 맡아 수고해주신 여러 이사님들의 덕분이며, 학회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요즈음, 인성의 틀을 결정짓는 유아기의 보호와 교육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한 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져 보면서,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앞으로도 육아지원의 질을 높이는 이론적·실제적 담론과 실천의 소임을 다해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끝으로 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기숙 교수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과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이사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다음 15호의 뉴스레터에도 기쁘고 의미있는 소식들을 담을 수 있도록 모든 회원 한분 한분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육아지원학회 7대 회장
심 성경 배상

논단

유아교육의 국제동향과 육아지원학회에 대한 기대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OMEP 세계회장

200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는 크게 연구, 정책, 국제기구의 실행의제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지난 15년간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육아지원학회가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연구동향

지난 15년간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내에서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유아교육 외부에서는 신경정신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건강, 위생 등에서 유아와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였다. 신경정신학에서는 인간의 두뇌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유아의 발달과 학습, 그리고 교수방법에 시사점을 주는 논문들이 많아졌고, 경제학 영역에서는 유아교육의 효과가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한 장기종단연구를 통해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학에서는 개념연구 등을 통해 유아기 혹은 아동기가 가지는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건강과 위생학에서는 인지발달 이외에 사회, 정서, 신체적 측면에서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이 제공되었다.

2. 정책변화

유아교육 정책을 접근성(accessibility), 책무성(accountability), 양질의 교육(quality),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별로 유아교육제도가 정비된 정도에 따라 정책 및 그와 관련된 연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유아교육제도가 이미 확립된 나라에서는 책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하였고, 대한민국, 홍콩, 중국, 칠레 등과 같은 아시아와 남미의 국가들은 취원율 향상을 위한 국가의 공적 재정투자의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초등학교 이전 단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아교육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정책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비교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OECD가 발표한 ‘Starting Strong’, ‘Education at a Glance’, UNICEF의 ‘The State of World’s Children’ 시리즈 등과, 대륙별 비교연구 시리즈 등이 크게 공헌하였다.

3. 국제기구의 실행의제

2015년 9월 UN은 제 70차 총회기간 중에 회원국의 정상회의를 통해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 “의제 2030”은 빈곤을 가장 큰 전 지구적 문제로 바라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DG)와 169개의 세부이행목표를 제시한다.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와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전 지구적인 불평등 문제, 정의,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환경 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목표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상호의존적이어서 매우 통합적인 접근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가운데 4번째가 교육과 관련된 의제이며, 유아교육은 교육의 두 번째 세부이행목표(target 4.2)에 해당한다. Goal 4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이며 target 4.2는 “2030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에게 양질의 아동 발달, 보호 및 초등이전 단계의 교육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유아교육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논단

유아교육의 국제동향과 육아지원학회에 대한 기대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OMEP 세계회장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지향적이다. 이는 교육의 세부이행목표 4.7을 통해 더 잘 드러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적 문화의 촉진,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화의 공헌 등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4. 육아지원학회에 기대하는 역할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육아지원학회가 회원 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연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방향성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SDG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불평등, 평화, 인권과 같은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에서 제시하는 목표들은 해당 기간 동안 그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실행의제를 추진함에 있어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및 연구에서 상당한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위의 키워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자주 다루어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회원 간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연구의 내용 측면에서 유아의 학습능력, 교육과정과 평가,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통합교과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 재정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유아교육은 전통적으로 유아중심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배움의 과정에서 유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주기를 통해 학습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국제적으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정책 확대에 따른 책무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학습의 결과를 측정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아교육의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취원을 제고를 위한 접근성보다는 양질의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양질의 교육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급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유아교육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의 인식을 알아보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교사의 교수학습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교육과정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교원의 역량 가운데 교육과정을 스스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 문해력에 대한 연구가 모든 교과 분야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향후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의 대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제협력 연구 혹은 융합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유아교육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여성, 건강, 위생, 경제 등의 영역은 유아교육과 연계되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재 여러 국제기구에서 출간한 보고서 등을 근간으로 간 학문적인 접근을 넘어서 융합적 혹은 변형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내 다른 학문 영역의 학회들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유아교육관련 국제기구, 학회,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그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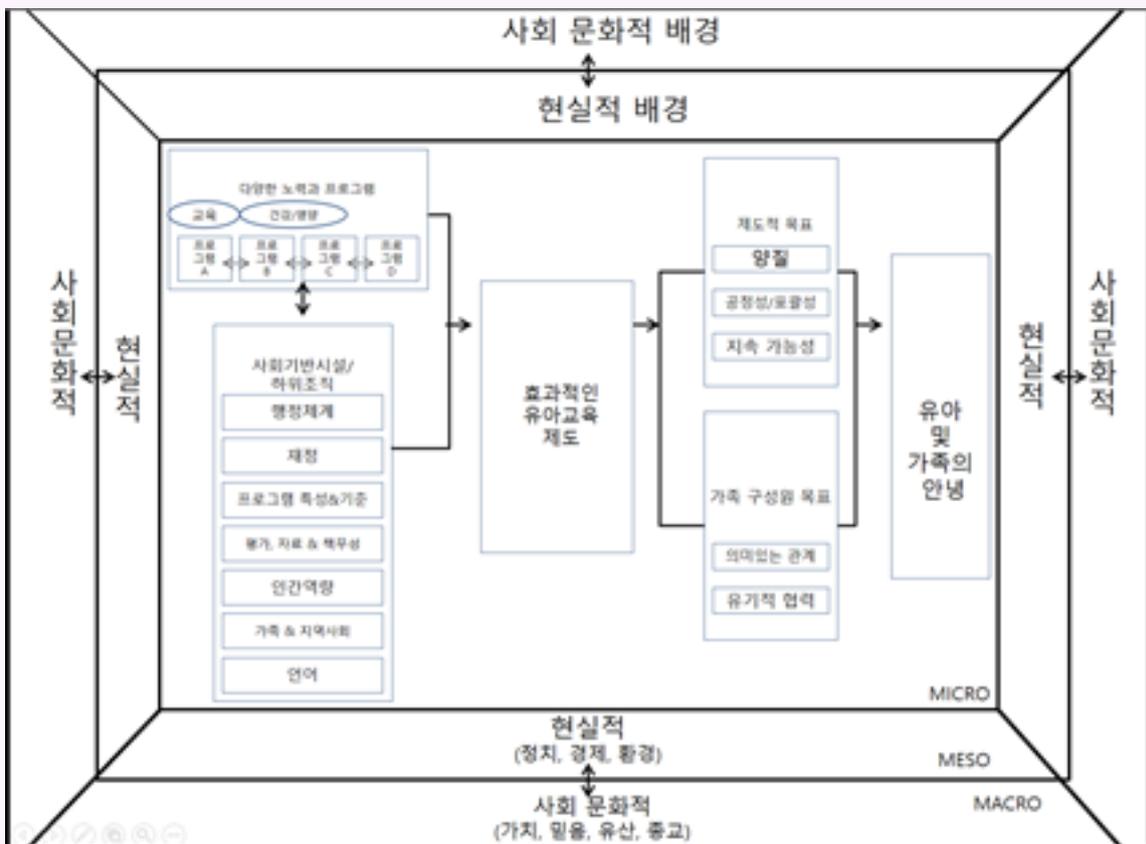
넷째, 연구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기종단연구, 패널연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통계와는 일부 다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원 간에 이러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스마트사회에 살고 있으며 실제로 매일 수많은 온라인 세미나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중계된다. 이에 육아지원학회가 선도적으로 webinar(web seminar)를 채택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논단

유아교육의 국제동향과 육아지원학회에 대한 기대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OMEP 세계회장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구들이 통합적인 체제 안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로 2016년 7월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콜럼비아 대학의 Sharon Lynn Kagan은 유아와 가정의 안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큰 그림을 가지고 종합적인 사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상에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 정책, 국제기구의 실행의제 등에 근거하여 육아지원학회의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역량 있는 회원들의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육아지원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1) Kagan, S. L. (2016). Transforming early childhood systems for future generation. Keynote speech at 68th OMEP World Assembly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July 4-8, Seoul, Korea.

학회 소식

1. 사단법인 한국육아지원학회 제7대 회장 취임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심성경 교수 (2016.4.)

2. 학회지「육아지원연구」소식

- 2016학년도 등재지 평가 A등급 쾌거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도입 (제12권2호 투고논문부터 적용 예정)
- 「육아지원연구」 11권(1호, 2호, 3호, 4호) 발행

3.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16년 춘계학술대회

- 일 시 : 2016년 4월 22일(금) 오후 2:30 ~ 오후 6:40
- 장 소 :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주 제 : 유아인성교육의 현황 및 과제
 - 기초강연 : 육아와 행복역량 키우기 / 문용린(서울대학교명예교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 주제강연 1 : 인성교육정책의 이해 / 오경미(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
 - 주제강연 2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인성 교육의 실제 / 이경미(아이코리아부속 새세대유치원 원장)

◎ 2016 추계학술대회

- 일 시 : 2016년 11월 4일(금) 오후 2:00 ~ 오후 6:00
- 장 소 :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주 제 : 학문간 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도전과 발전
 - 기초강연 : 통섭형 인재와 따뜻한 방목 /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 주제강연 1 : ‘스마트 기술 기반의 쌓기 놀이 : S-Block의 개발과 교육적 활용 / 이병호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주제강연 2 : ‘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한 스포츠체험형 융합교육의 실제 / 신상인 (신우유치원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4. 정기 연구모임

◎ 59차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 일 시 : 2016년 1월 19일(화) 13:30~16:00
- 장 소 :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
- 발 표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옥정(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학회 소식

◎ 60차 「누리과정 전후 유아교육의 환경 변화」

- 일 시 : 2016년 1월 26일(화) 13:30~16:00
- 장 소 :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
- 발 표 : 누리과정 전후 유아교육의 환경 변화
이진화(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61차 하계 연구모임

- 일 시 : 2016년 8월 16일(화), 09:40~15:00
- 장 소 :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W10(사회복지융합관)
- 오전토론 : 유아음악교육,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1,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1
- 오후토론 : 유아음악교육, 유아논리및논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좌 장 : 이춘자(침례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희경(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강경아(우송정보대학 아동보육과 교수), 변길희(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윤정(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5. 이사회 개최

◎ 제6대 2차 이사회

- 주요안건 :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 2016년도 부서별 사업계획
- 일 시 : 2016년 2월25일(목) 18:00
- 장 소 : 진진바라 서울역점

◎ 제7대 1차 이사회

- 주요안건 : 법인 이사장 및 주소지 변경 보고 사항, 2016년 추경안 검토
- 일 시 : 2016년 6월30일(목) 12:00
- 장 소 : 진진바라 서울역점

◎ 제7대 2차 이사회

- 주요안건 : 2017년사업계획, 추경예산, 정관변경건
-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11:30
- 장 소 : 진진바라 서울역점